



전라
남도

농업기술원

보리 붉은곰팡이병 등

맥류 병해충 발생 우려

병해충 발생 정보



겨울철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맥류 병해충 발생우려



작년 출수기 무렵에 발병했던
잎짚눈무늬병과 황화왜화병 발생도 우려

밀과 보리의 주 재배지역인 전남은
작년 월동 중 고온과 금년 봄철 고온으로
진딧물 또한 예년보다 빠르게
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 요구

※ 붉은곰팡이병

붉은곰팡이병은 이삭이 패는 시기부터 여우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
곰팡이병으로 주로 연속강우 3일 이상의 온난·다습 환경에서 발생해
이삭이 여물지 않아 피해를 줌

피해예방대책

조기에 발견하여 빠르게 방제 하는것이 중요합니다.

곰팡이병은 보리 이삭이 나온 후 평균기온 18~20°C, 상대습도 80%, 강우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, 병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.



보리발 습도가 높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철저



이삭 패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방제하거나
병 발생 초기에 캡탄수화제나 빅스톤 등 적용약제를
농약사용기준에 맞춰 방제

반드시 보리, 밀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
맞춰 희석배수, 살포회수, 수확 전 살포 가능일 등을
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포

보리 붉은곰팡이병이나 황화왜화병은

보리밭 배수로 정비와 적용약제 살포만으로도
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
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.



전라
남도

농업기술원